중앙자활센터

자활 읽기

vol. 24
2019

Zoom in 자활
청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자활이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리서치, 자활
2019년, 우리는 미래의 자활을 고민합니다

속닥속닥 고민상담소
자활인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4
9 772288 044007
ISSN 2288-0445

중앙자활센터

2019년도

총 11개의 광역자활센터가 중앙자활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6월 말 기준)

강원광역자활센터, 경남광역자활센터, 경북광역자활센터,
광주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자활센터, 대전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북광역자활센터

CONTENTS

자활현장

02 찾아가는 자활현장 사람이 희망이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06 자활읽기가 만난 사람 따뜻함이 일궈낸 자활명장, 임형석 대표와의 만남
10 꿈이 자라는 일터 외부세상과 연결하는 소통의 휠체어를 알리다.
12 Zoom in 자활 청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자활이슈

16 특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준비과정과 관계자 인터뷰
24 축하의 한마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기대와 축하의 말씀

자활플러스

30 카드뉴스 자활조직협의체 / 커뮤니티케어 소개
34 리서치, 자활 2019년, 우리는 미래의 자활을 고민합니다.
36 속닥속닥 고민상담소 자활인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자활산책

38 독자 참여코너 자활고사를 잘 보려면? '자활읽기' 다시보기!
39 Now&News 중앙자활센터 상반기 뉴스

〈자활읽기〉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자활읽기〉는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 → 소통마당 → 홍보자료실에서
e-book(전자책)과 PDF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ISSN 2288-044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자활읽기〉 통권 제24호
발행일 2019년 6월 **발행처** (재)중앙자활센터 02-3415-69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 삼창빌딩 5층 **www.cssf.or.kr**
디자인·제작 좋은PR소야 070-4616-4040~3 **이미지** Getty Images Bank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의 자료는 중앙자활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외부 필자의 글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사진 하다솜(좋은PR소야)

사람이 희망이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꽃은 철쭉이다.
4월에 방문했던 광주에는 곳곳에 철쭉이 꽃분홍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철쭉을 닮아 은은하고 따스한 광주시민의 후한 인심과 다정다감함을 느끼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를 찾았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2010년도에 복지부 인가를 받고
2011년 6월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총 1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세차 청소 영역, 먹거리 영역, 청년자립교육 관련 영역의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20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

광산하면 역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자활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부가 가치는 아닐지라도 참여자들 눈에 보이기에 어렵지 않고 편한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로 바뀌었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도 먹거리 쪽이 다른 영역보다 특화되어 있다. 제과제빵, 도시락반찬사업단, 누룽지, 차(茶)사업 등이 그 예이다.

박 센터장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먹거리 사업은 바로 '딜라잇가든사업단'과 우리 밀로 만든 '제과제빵 제품'이다.

먼저, 딜라잇가든사업단은 박 센터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건조식품사업단이었다. 시장의 흐름이나 기술력, 정보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가 부재해 있는 상황에 그가 부임했고, 그는 기존의 건조식품사업을 전통 차와 누룽지로 품종을 바꾸고 사회적일자리형으로 전환했다. 이제 신규사업 2년 차에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광산구는 전국에서 우리 밀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초창기부터 자활기업 한 개소와 사회적 일자리 한 개소에서 제과제빵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우리 밀로 만든 빵과 쿠키가 센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업이다.

박경언 센터장

센터장 적응기

"직원들은 기존의 직영 시스템 아래에서 초창기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 영역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민간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공공사업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응하느라 제가 힘들었죠."

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박 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라는 완전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9개의 사업단은 2개만 빼고 전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다른 민간 영역의 경쟁자들과 대등하게 운영하려면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적인 행정 시스템은 그런 부분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스템에 맞춰서 행정과 협업을 통해 이미 센터가 운영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했다. 현재는 즉각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잘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
완벽히 공적인 영역에 들어온 후 그는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다. 참여하는 주민들과 소비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센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에서 직영을 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사람 중심'을 이야기해요.
>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서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 안전망이 확보돼서 직원들도 부담을 덜 느끼고요."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들은 모두 광산구 관내에 거주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와 시스템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은 센터에도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 중심!

박 센터장과의 인터뷰 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을 하나 꼽으라면 "사람 중심"일 것이다. 그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물었다.

"예측 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은 미리 우리 직원들과 공유를 해서 준비를 해요. 하지만, 그게 일 순위 아닐까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사람 중심'을 이야기해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과 신뢰를 외치는 박 센터장이 운영하는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이념은 "사람이 희망이다"다.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가야지, 구분해서 배제하고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경언 센터장이 말하는 자활사업은, 시스템 중심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그냥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미가 넘치는, 같이 떡을 한 조각 떼서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그의 목표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센터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신뢰를 우선으로

박경언 센터장에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지역자활센터와의 신뢰 회복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생기면, 자활사업에 대해 구심점이 생기고 힘이 더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정부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활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자활만 연구하고 자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 고민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어떻게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과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북카페 '드림애'

박 센터장은 지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생기기 위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일련의 진통이라고 표현했다. 과도기를 겪고 나면 안정기가 올 것이고, 협업의 과정에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말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희망찬 기대를 품고 있는 박 센터장에게는 남다른 목표가 있다. 각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젊은 청년 창업가들과 연계해서 그들의 사업 아이템을 각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자활은 공간과 인력은 있는데 그 아이템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캔들, 비누, 누룽지 등의 사업 아이템의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레시피를 통일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기회비용은 줄고 공동 매출은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지역자활센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로 협업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자활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뷰밀 베이커리

100% 우리 밀로 만든 건강 베이커리!

뷰밀 베이커리는 100% 우리 밀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생산 농민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글·사진 하다솜(좋은PR소야)

따뜻함이 일궈낸 자활명장,

임형석 대표와의 만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춘천에는 아직 벚꽃이 한창이다.
따스한 봄 햇살이 작업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온갖 시설물이 가득하다.
이른 오전에도 퉁탕 퉁탕 망치질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아침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 현장에서 자활명장 임형석 대표를 만났다.

●●● 주(住)를 말하다.

임 대표가 말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권을 강화하는 일'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나 만날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집에 욕실이 없어 씻지 못하는 사람들, 대형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어 갈 곳을 잃은 가족들과 같은 사회적 이웃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 이 밖에도 한국 에너지 재단과 협력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주거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었던 임 대표는 지인이 이 사업을 소개해 주었을 때, 호기심이 생겼다. 주거복지사업의 주된 업무는 곧 주택 수리이고 망치질이라면 역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호기심을 평생의 일자리라는 확신으로 매듭지어준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주거복지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주거복지사업이지만, 18년 가까이 이 일을 하는 지금도 종종 자신과 복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의 불뚝 같은 성격 때문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눈물 나거나 가슴 찡한 일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임 대표의 불뚝 같은 성격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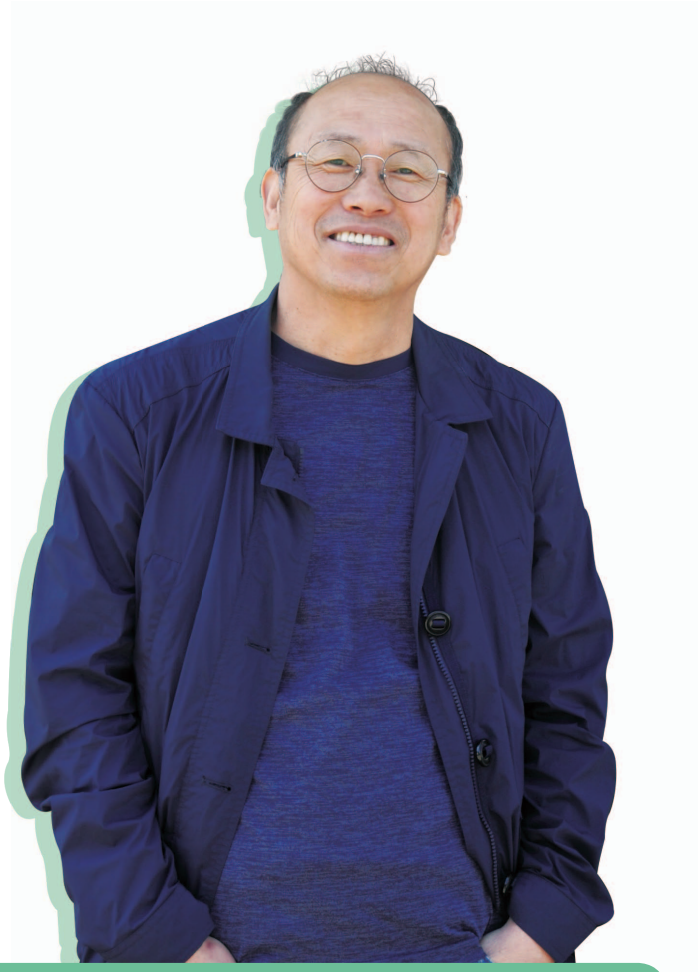
●●● 나를 잡고 있는 하나의 끈

임형석 대표는 자신이 자활명장이 된 이유로 긴 시간 자활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어떻게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거복지사업을 키워올 수 있었을까?

사업 초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전국자활기업공동체연대를 주로 찾았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존재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활력이 생겼다. 이제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주거복지사업계의 선배가 되어 선배의 역할을 잘 소화해 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임 대표가 명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거복지사업을 하며 만났던 따뜻함 덕분이었다. 양양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완전히 전소돼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던 집을 수리하게 됐다. 엉망이던 건축 자재들이 집의 형태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일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 거기에 다시 입주하는 전소 가구
>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 입주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뿌듯함 있잖아요.
> 그런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입주하는 전소 가구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입주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뿌듯함 있잖아요. 그런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일보다 사무업무를 보는 일이 잦은 임 대표의 사무실 전화는 언제나 요란하게 울린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날에도 그는 전화가 걸려오면 인터뷰 도중 통화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 수많은 전화 속에는 간간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사업을 하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에겐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었다. 어르신들 댁을 공사하고 나면 '공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곤 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제가 3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세 번 받았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받을 때 왠지 모를 그런 게 있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저를 잡고 있는 하나의 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주거복지협동조합
Gangwon Housing Welfare Cooperative

절박함, 간절함으로

사업 초기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했던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1년 초, 강원도에 있는 14개 주거복지자활기업을 규모화시키고 전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자활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임형석 대표는 조합을 꾸려나가며 주거복지사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서울과 비교하면 강원도 지역은 주거복지 관련 제도나 센터가 많이 부족하다. 올해 그가 우선으로 목표한 것은, 춘천시에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법적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다. 더욱더 빨리, 그리고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고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주거복지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노인낙상방지예방사업'을 기획 중이며, 춘천 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노인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개발하는 일에 동참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은 이제 임 대표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런 그가 강연을 나가고 후배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단 목표를 가지고 1년만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1년 만이라도 이 일을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1년 뒤에 내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두면 되는데, 요즘엔 1년도 안 해보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라는 이야기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생 기업을 보면, 본인의 의지를 갖추고 나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느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조한다. '맞는 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에게 주라'고.
주거복지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독점적인 시장도 마련되어 있고, 임형석 대표와 같은 선배들도 현장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밝다. 아직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주거복지사업이 가져다줄 따뜻한 웃음을 함께 기대해 본다.

| 글·사진 김아람(중앙자활센터)

외부세상과 연결하는 소통의 휠체어를 알리다.

김성수

대전행복전동휠체어 대표

01 처음에 전동휠체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신 계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나 뇌졸중으로 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면서 휠체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원 자녀 중에도 장애인이 있어 직원들도 사업에 애착이 많은 편이고요.
지역자활센터에 휠체어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해당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02 대전행복전동휠체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고객유치가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극복하셨던 과정이 어떠하셨는지요.

전동휠체어사업은 노인보다는 장애인 고객이 대부분이며, 기존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10년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기존 거래처인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유치가 유독 어려웠지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초기에는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의 최승희 과장과 함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였고, 전단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휠체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리받는 것을 선호하는지, 수리 서비스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등을 2개월간 현장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홍보한 결과, 대전행복전동휠체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행복전동휠체어는 타업체에서 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수리가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소개받아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3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보람되었던 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객인 장애인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외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활용하여 고객이 3~4개월 후 스스로 외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를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네요. 대표님 덕분에 바깥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겨주던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는 나에게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때문에 연고지 없는 대전에 내려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아내와 함께했지만, 이후에 사업이 잘 진척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내 산소에 가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팀원들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04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경영 지원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만족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2018년 9월부터 중앙자활센터의 연계를 통해 대전광역자활센터와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황성훈 팀장님(대전광역자활센터), 김준원 차장님(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께서 다방면으로 도와주셨고, 문우식 부장님께 컨설팅을 받아 홍보, 교재개발 등에 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05 행복전동휠체어는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서구의회에서 조례(안)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수리사업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구청에서 연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기초수급자의 경우 20만 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06 대전행복전동휠체어의 비전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요.

첫째는, 전동휠체어 수리 민간자격증 승인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국비로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휠체어를 자체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수리에 관한 민간자격증을 업계 최초로 신청한 상태로, 주무 부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이 승인된다면, 국비로 해당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고 싶습니다. 또한, 휠체어의 경우, 업체에서 수입하는 것을 공급받아 판매하다 보니 수익이 높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대전행복전동휠체어
대전 서구 용문로 118 한진아파트 ☎ 대표전화 042-282-0079

| 글·사진 김아람(중앙자활센터)

청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김미아

김해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팀장

차별화된 꿀벌카페로 청년창업 이루어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으로 정비된 (구) 진영역 역사 박물관 전시 열차가 기차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다. 김해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게 된 '꿀벌여행' 기차카페는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다.

"벌꿀을 활용한 메뉴 선정을 통해 차별화된 카페 운영과 북카페 공간에서 다양한 키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강사양성 등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어요."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사업단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우리 센터는 부설 사업으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충족돼서 청년자립도전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은 청년들은 연륜이나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업단에 적응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자활 참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더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작용했죠."

양봉사업에서 꿀벌카페로

"2015년경 팀장님께서 영농사업단 실무담당자로 근무할 때, 사업단 참여자 17명 중 9명이 20~30대 청년자활 대상 참여자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삶의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활 ·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전문바리스타 육성 및 카페 창업,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인력으로 '취업'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거예요."

사업을 찾다가 2016년 경남도 시민을 위한 도시 양봉 교육 수료 후 양봉을 부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양봉 2년 차에 '도시네꿀'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3년 차인 2018년도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에서 '도시네꿀' 선물세트가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굿스굿스인증 상품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2018년 도시 양봉사업단의 정식사업단 출범 및 청년자립도전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카페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꿀벌을 테마로 한 '꿀벌여행' 기차카페에서 커피와 교육을 통한 청년자립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이루어낸 완벽한 하모니

김해지역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7명의 참여자가 있다고 한다.

"청년들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용모 확인, 개점 준비와 청소, 메뉴 재료 확인, 카페와 프로그램 운영,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분배해서 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리더십, 키즈프로그램 진행기술, 양봉실무경력, 전산회계자격증, 외국어 등 장점을 갖고 있는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참여자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주도적으로 카페 이름 정하기부터 메뉴 선정, 카페 운영과정의 기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모습

청년 개개인의 욕구는 다양하고, 카페운영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종교적 문제와 육아 문제 등으로 주말 근무자 채용의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생활 경험 부족으로 직장인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일상생활지원까지 청년담당자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사업단운영과 사례관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함에 체력 소모가 큰 것 역시 카페운영의 난항을 겪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꿀벌여행' 기차카페 운영을 위한 전문 바리스타 육성 및 카페 창업, 키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양성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인력으로 '취업'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거예요."

또한, 2018년 12월 사례관리 콘퍼런스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는 자활근로를 중심에 두고, 단계별 설계를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활센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과 교육 및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자활근로공간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또래집단의 사업단 운영을 통한 근로 의욕 향상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과 경험을 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자활센터나 청년 자활사업 담당자의 최우선 과제인 거 같다고 했다.

청년의 꿈을 안고, 꿀벌여행 출발!

T O D A Y N E W S

김해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기대를 가득 안고, 지난 5월 31일(금) "CAFE 꿀벌여행"의 개점식이 진행됐다.

개점식에는 김형수 시의회 의장과 자활기업 대표를 비롯한 시·도 의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청년들의 꿈을 실은 "꿀벌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CAFE 꿀벌여행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한다.

CAFE 꿀벌여행 (舊) 진영역 기차 박물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55 (진영레일파크 내 위치)
☎ 042-282-0079

| 정리 김아람(중앙자활센터)

자활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2019년 7월 16일,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더욱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따른 사업방향

1 저소득 빈곤층 자립 지원강화

자원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개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자활사업 연계 일자리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단 · 자활기업의 일자리 제공 능력을 확대합니다.

지역 · 광역 특화형 사업 개발 · 지원
자활사업의 지역 특성 기반 규모화, 일자리 모델화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공모 및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활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을 규모화하고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합니다.

사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 성장 단계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경영 지원 및 자활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 등의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성과를 확대합니다.

참여자 맞춤형 특화자활사업 운영 지원
청년자활사업 확대 운영 및 신중년 대상 특화자활사업, 조건부과유예자 맞춤형 취업 능력 교육 등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통합 돌봄 지원 및 취업연계형 일자리서비스 사업개발
그동안 자활사업의 지역돌봄경제 활성화에 걸맞은 안정적 자활근로일자리 확보, 근로취약성을 감안한 직업훈련, 인턴, 지역 틈새 일자리와의 연계를 감안한 추가 사업 실시 검토

2 자활사업 기반 구축

자활 지원 정책 · 제도 조사 연구 활성화

저소득 일자리를 연구 조사에 기반하여 강화합니다.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광역·지역 자활사업 성과 계약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류 · 소통을 강화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 성과 홍보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안정화

소득 1분위 계층 신중년,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재무사례관리 지원

일자리 상실로 소득 감소 가구, 부채 부담이 높은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복지+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심화 사례를 관리 및 제공합니다.

3 경쟁력 있는 자활인재 육성

(한국자활연수원 운영)

참여자 교육

참여자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실무자 교육

전문성 있는 종사자 양성

교육 역량 제고

현장 교육 수행 및 수요자 욕구 중심 교육 실무역량 강화

4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확립

공공기관 전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핵심 미션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준비합니다.

통합 조직체계 정립

부서의 본원적 기능에 부합한 하위부서 설계와 전사적 지속성장 및 업무성과 강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상지대학교	교수	유만희	(現)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회 I (실무행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산해	(現)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위원
	부경대학교	교수	김은정	(現)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前)Albany대학 방문 교수
	전국자활기업협회	회장	오인숙	(現)협동조합 허브이야기 대표
소위원회 II (발전전략)	한신대학교	교수	이인재	(前)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구인회	(現)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태	(現)(사)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준홍	(現)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앙자활지원센터로부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확대 개편은 자활사업 발전의 궤적을 새롭게 그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앙자활센터 이사장
유만희

0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자활지원센터로부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확대 개편은 자활사업 발전의 궤적을 새롭게 그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변화를 모색해야겠죠. 자활복지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겠습니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필요한 전반의 활동을 담당해야 합니다. 탈빈곤 지원활동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의 공급자 입장보다는 참여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지원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견실히 지켜왔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모색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장성에 기반한 조직, 현장의 이해와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활복지개발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02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화하는데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필요성과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답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성찰해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한민국의 빈곤정책 역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법 제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되돌아보면, 기초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복지역사에서 불가능한 정책 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정책이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어찌

보면 빈곤정책의 질적 전환의 대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정책은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경과한 지금의 자활정책, 자활현장은 어떠한가? 거듭나고, 도약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투적이긴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자활선배들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것이 온전히 투영되는 자활복지개발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조직의 확대 개편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자활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력을 다하는 자활복지개발원이어야 합니다.

0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 시 직원들이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들은 '현장성'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제시하는 정책방안과 프로그램 하나하나는 연구실 혹은 실험실에서 나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활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라 불리는 참여자'가 있고, 그분들의 탈빈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일선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현장에 발 딛고 있는 자활복지개발원 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성에 과학적 접근이 같이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히 자료와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수행일 때 과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융화 차원에서 개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자활지원센터 + 자활연수원의 외형적 통합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형식적 틀에 그치지 말고 직급, 직종, 근속연수, 출신 배경이 긋는 장벽과 선을 넘어서는 융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에 걸맞은 나만의 준비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04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이전에 자활 연구자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사장으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출범을 앞두고 주변의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우려는 불식까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활에 연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또 축하받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출발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설립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실무를 맡아 수고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중앙자활지원센터와 자활연수원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활원의 탄생은
지금까지 16년을 거쳐 진행되어 온
국내 자활지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중앙자활센터 이사
이산해 변호사

0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원')은 기존 중앙자활센터를 넘어서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자활원의 향후 역할은 그 탄생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즉, 기존 중앙자활센터 형식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법을 통해 자활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곧 이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기존 자활지원사업은 지난 16년간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설치되었고, 그 운영주체가 상이하며, 역할에 있어서도 명확한 분담 및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자활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자활원은 첫째, 내부 기관이 되는 자활연수원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각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와 공유하여 자활사업에 실현되도록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전체에 대한 발전방향과 이를 위하여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가 맡을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자활센터가 타 자활센터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역할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각 자활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각 자활센터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고, 셋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 상담, 선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속적 관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정보·자원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자활원은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두뇌 역할을 할 것입니다.

02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화하는데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자활원이 자활지원사업의 두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신체 역할을 하는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개개 기능과 전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비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자활센터가 자활원 및 타 자활센터와 한 몸의 일부로 움직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자활사업이라는 한 몸으로서의 움직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와 관련 기관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통된 목표를 향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활원은 각 자활센터들을 통하여 수행되는 자활지원사업의 모든 정보가 소통되는 곳이고, 각 자활센터들이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도록 하는 리더십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통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과 자활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0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 시 직원들이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두뇌가 되는 자활원이 수행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모두 자활원 직원 한 분 한 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관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부분과 동떨어진 모습을 가질 수 없고, 자활원의 모습은 자활원을 구성하는 여러분 직원 개개인의 모습과 역할수행에 따라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활원이 국내 자활지원사업을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두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직원분들이 모두 각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두뇌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분들 각자가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직원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매개체가 되며, 각자가 자활지원사업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는 두뇌가 되고, 각자 자신을 통하여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자활지원사업을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인 성취감을 느끼며 자활전문가로 성장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4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활원의 탄생은 지금까지 16년을 거쳐 진행되어 온 국내 자활지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자활원으로 인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새 세대를 이끌어 갈 자활원의 탄생과 시작을 축하합니다. 새로 탄생하는 자활원의 구성요소가 될 직원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활원을 통하여 변화하고 성장할 자활지원사업을 볼 수 있어, 또 그 사업들을 통하여 성장할 자활원을 볼 수 있어, 나아가 그 성장하는 자활원 속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직원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물론이고
자활현장에서 일하는 자활실무자들의
사기 진작과 사업수행을 위한
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앙자활센터 이사
이인재 교수

0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활복지개발원은 중앙차원의 자활복지사업의 중심기관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중앙자활센터가 담당하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여건상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연구 조사 기능의 확대 등 인적, 물적 인프라 보완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업과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근로연계복지사업의 확대에 맞추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활사업참여과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과 관련된 사업과 자활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와 국제교류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활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자활교육훈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미션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향해야 합니다. 고령사회 도래와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한 민간시장 고용생태계의 변화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주무부처로 보건복지부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 사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획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출발점이 자활사업인 만큼 근로연계복지사업 전반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정책과 사업기획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02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화하는데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자활센터 출범 시기의 중앙자활센터의 미션과 현시점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미션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자활센터 기간 중 축적되어 있는 사업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적어도 5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조

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을 연계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자활복지개발원 출범은 정부의 2단계 자활사업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는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담은 발전계획은 2단계 자활사업의 핵심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나 자활복지개발원 조직원들 각자의 비전과 미션 정립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션을 찾고 수립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이 되기 바랍니다. 조직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미래의 전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활복지개발원이 혁신적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기 바랍니다.

0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 시 직원들이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기초법 시행 이후 자활사업은 공적사업인 생산공동체운동을 주도하던 지역활동가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입니다. 그동안 자활사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등락이 있었지만 자활사업은 민관 협치의 근본적 지향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현장의 전문적 활동가들과의 협치 정신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자활현장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이들과 연대 협력하지 않는 자활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기반한 자활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책무성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이 갖는 안정성,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자칫하면 현장보다는 기관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자활현장과 함께하는 초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의 책무성원칙과 자활사업수행 시 민간과의 거버넌스 원칙을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04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활사업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시작으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보건복지부 정부재정일자리사업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중요성에 걸맞은 중앙 지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하게 되어서 안도감도 들고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자활복지개발원이 개발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물론이고 자활현장에서 일하는 자활실무자들의 사기 진작과 사업수행을 위한 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리 김아람(중앙자활센터)

2019년 7월 16일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연수원과 통합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됩니다.

기대 또는 축하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대전광역자활센터

가난한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내일을 키우는
역할의 선봉장이 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활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꿈꾸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황성훈-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의 만남이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분들, 실무자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현애-

부산강서구지역자활센터

통합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적극적 협조 약속드립니다.

-김영희-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의
통합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자활연수원과 중앙자활센터가
통합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미현-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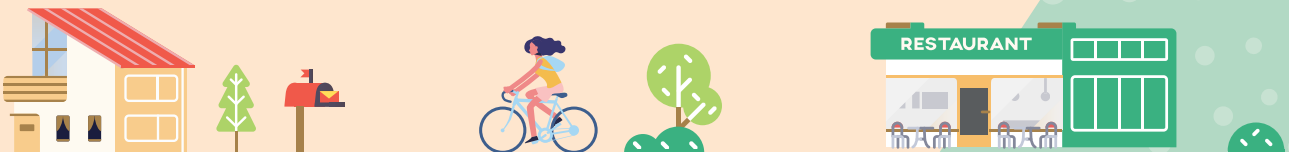
먼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각각의 기관으로서도 자활사업 및 참여자와 종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힘써주셨는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되더라도
자활 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교육을 위해 참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진-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그간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실현하던 곳과
그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는 곳이 달라
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하던 것들이 해결되리라 기대됩니다.
참여자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이
이 일원화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더 발전, 번영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길 기원합니다.

-이현창-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축하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되어 좀 더 신속하고 다양한
자활복지가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가 앞서는데요.
체계적이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합니다.
방대해진 통합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서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복경-

전주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의 통합을 축하드립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힘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한-

전주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자활의 희망과
앞서가는 자활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주일-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좀 더 신속한 행정처리 및
자활센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경희-

강원춘천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더 큰 기관으로 거듭나심을 축하드립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실무자도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많아지는 일손으로 더욱더 전문가 집단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그 안에서 실험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큰 그늘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거듭나심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문경민-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이제 막 사회복지사로 들어온 터라 전체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번 청년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연수원에 소속된 팀장님들의 조언과 정보를
통해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중앙자활센터에 속한 분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중앙자활센터와 연수원의 실무자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되면 이분화된 업무의
중복이 없어지고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도 부탁드리고,
이번 통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허동혁-

전주지역자활센터

먼저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역자활센터를 위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실무자들의 교육(직업능력 향상)에
조금 더 힘써주세요.

-이호신-

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

귀 기관의 합병을 축하드립니다.
합병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협업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통합을
축하합니다.
자활종사자와 참여자를 위한
좋은 교육들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해람-

전주지역자활센터

통합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자활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열정으로 업무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김형구-

전주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역자활센터 간에 좋은 중재자로
활약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단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귀 기관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정진규-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는 기관으로 기대합니다.
자활센터의 종사자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선이-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통합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실무자들에게도
복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순정-

부산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들의 더 큰 힘이 되어주세요!
꽃길만 걷기를~

-허동구-

전주지역자활센터

통합을 축하합니다.
자활을 촉진하는 센터와
행복한 연수원이 만나
빈곤 없는 더 큰 사회를 이루고,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리라
믿습니다. 지화자~!!

-양은성-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활의 참여자, 종사자를 위한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정옥경-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좋은 일, 기쁜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자활인 파이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파이팅!♡

-박선영-

전주지역자활센터

통합된 것에 대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약으로 한국자활연수원의 교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서연-

대전광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서 지역자활센터에 많은
지원과 독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미경-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자활을 위해 많이 힘써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조숙영-

강원광역자활센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현규-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지금보다 더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위성금-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이 통합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전해 들어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생일이 되겠네요.^^
통합이 된 걸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리라 믿고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수아-

구례지역자활센터

축하드립니다.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서류보다는 현장에서의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주임-

| 정리 김아람(중앙자활센터)

자활 카드뉴스

CSSF CARD NEWS. 01

자활조직협의체,

자활의
밝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1

CSSF CARD NEWS. 01

지난 5월 3일~5월 4일 이틀에 걸쳐
경기자활조직협의체의
통합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자활조직협의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

CSSF CARD NEWS. 01

자활조직협의체란,
여러 자활 조직이 자활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결성하게 된
협동조직입니다.

3

CSSF CARD NEWS. 01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입니다.

자활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협동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4

CSSF CARD NEWS. 01

우리의 자활현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협회,
자활주민협동회, 광역자활센터 등
4개 자활조직은 지속 가능한
자활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5

CSSF CARD NEWS. 01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고,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얼굴을 붉히며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자활 조직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자활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자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6

CSSF CARD NEWS. 01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자활조직협의체입니다.
현장에서 추진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자활조직협의체는 **지속 가능한
자활환경 조성, 연대와 협력체계 강화,
자활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의 길을
자활조직이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7

CSSF CARD NEWS. 01

1. **지속 가능한 자활환경 조성**은 일방향인 정책을 **쌍방향**으로 만들어가며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2. **연대와 협력체계 강화**는 자활조직 간 정책, 사업, 교육 등 협의체계 구축 및 공동운영을 통해 **신뢰와 상생의 구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입니다.
3. **자활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우리들만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존재하는 빈곤을 헤쳐나가기 위해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활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CSSF CARD NEWS. 01

자활조직협의체는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는 것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고 기둥이 되어 주는
상생의 협업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9

CSSF CARD NEWS. 01

자활조직협의체는
현재 광역 단위에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주민협동회,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가 협의체
구조로서의 힘을 모아내고 아래로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과 주민협동회가
협의구조를 만들어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공론과 협동의 희망사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자활현장의 과제**입니다.

CSSF CARD NEWS. 02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걸음 더 가까이,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1

CSSF CARD NEWS. 0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일까요?

2

CSSF CARD NEWS. 02

COMMUNITY CARE

커뮤니티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3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은 2019년도인 올해부터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여 2026년 이후,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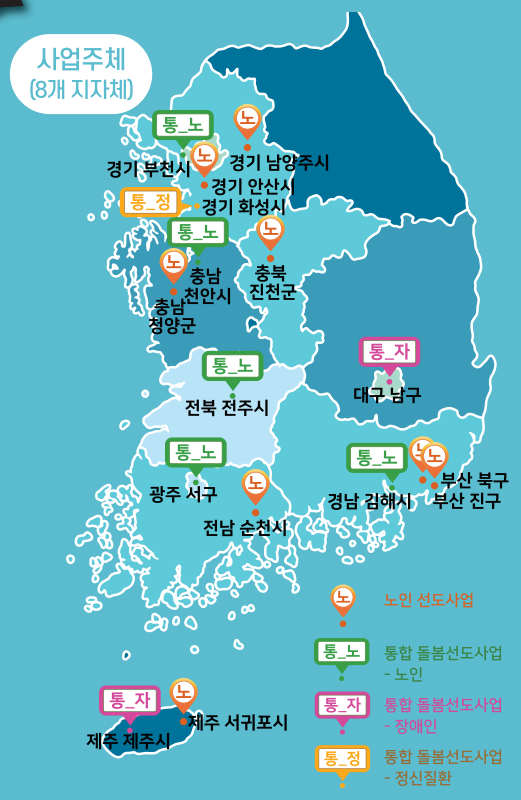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1 2018 - 2022 **선도사업 실시** (2019~)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 2023 - 2025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3 2026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2026)] **커뮤니티케어 제공 보편화**

5



4

선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군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사업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예산 + 자체 재원으로 구성

6

사업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환경개선이나 통합 돌봄 등 자활사업에서도 이미 활성화된 분야가 많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서는 주거시설 개보수 공사, 방역, 정리수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는 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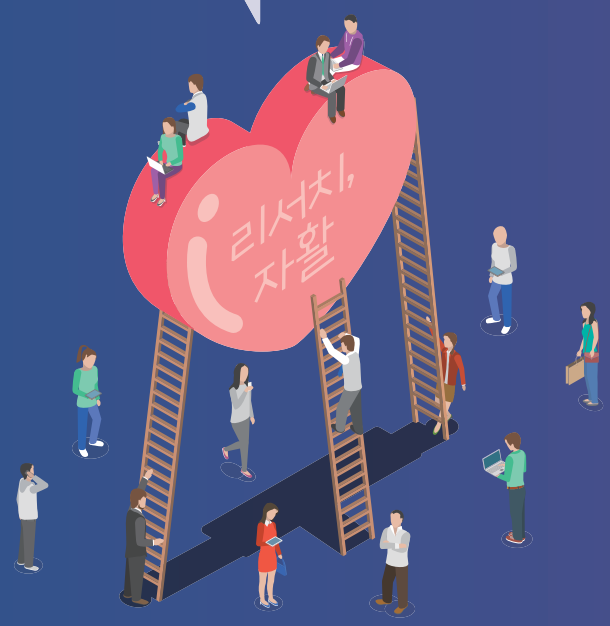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준비 또는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분야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 정리 김아람(중앙자활센터)

리서치, 자활은 중앙자활센터 조사연구팀의 연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019년, 우리는 미래의 자활을 고민합니다.

중앙자활센터 조사연구팀은
미래의 자활을 기획하고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2019 올해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될까요?

RESEARCH 1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연구

연구 내용

- 전국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개발
  - 자활 인프라 내 광역자활센터의 당위적 역할 및 업무 분석·제시
  - 전국 광역자활센터의 상향 표준화된 공동 사업 체계 및 운영 규정 도출

기대효과

-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개발·적용을 통한 센터 간 운영 격차 해소 및 업무 역량 상향화
- 체계적·효율적인 광역자활센터 운영 전략 모색을 통한 사업수행의 명확성 및 실효성 증진

RESEARCH 2

공공자원 현황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내용

- 선행 공공자원 연계 일자리 개발 연구자료 조사 및 분석 등
- 중앙 및 16개 광역지자체 공공자원 연계형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활사업 자원 연계 가능 분야 도출 및 해결과제 제시

기대효과

- 공공자원 중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 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
- 공공자원 연계 가능성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자활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 활성화

하나,
자활의제를 **생성**하고 **대응**을 모색합니다.

둘,
자활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제공**합니다.

셋,
정책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넷,
자활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수탁**합니다.

RESEARCH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차년도 패널 구축 연구

연구 내용

-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 패널구축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사표 재구성
-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심의
-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조사(panel survey) 실시
- 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성과 및 개선사항 제시 등

기대효과

-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참여자의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유용한 자료 제공 및 정책 관심 유발
- 참여자의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는 시계열 자료 분석으로 다각적 차원의 정책 효과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RESEARCH 4

농어촌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 내용

-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의 추진 실태 전수 조사 및 분석
- 농어촌지역 자활사업단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향 제안
-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평가체계 검토 및 제시
-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시범적 자활사업 모델 및 추진 방안 제안 등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농어촌지역의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및 프로그램 효율화 기여

자활인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속닥속닥 고민상담소

오래된 빚…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담내용

남편과 헤어진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애들하고는 가끔 연락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얼마 전까지 같이 살았는데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지금은 월세방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시청에 갔다가 자활센터를 안내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도 부담되고, 저한테는 10년이 넘은 빚이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끌어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빚도 갚아야 하고 이사 가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하는데…
삶도 무기력하고 내 나이 벌써 50에 내 몸 하나 뻗을 집도 없이 늘 불안하고 갚긴 갚아야 하는데, 오래된 빚이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지금 은행거래도 안 돼서 나중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담과정

상담 중에도 휴대폰이 울렸다. 한참을 번호를 확인하면서 전화 받기를 머뭇거렸다.

“혹시나 독촉 전화일지도 몰라서요.”

내담자 A씨는 모르는 번호가 휴대폰에 울리면 독촉 전화일지 몰라서 알고 있는 번호만 전화를 받는 상황이었다. 오래된 빚의 무게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볼까요?"
대상자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재무적 고민사항과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1순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보증금 마련
- 주거 이전 시기 : 1년 6개월 후
- 현재 소득 및 지출현황 파악 후 월 저축가능 금액 확인
- 매월 30만 원씩 1년 6개월간 저축 후 500만 원 마련

2순위 채무조정에 따른 부채상환
-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지출항목 조정으로 약 15만 원 여유자금 확보 가능. 월 15만 원의 부채 변제금 납부 가능

3순위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채무정보 파악	채무조정 가능제도 안내	소액채무재기지원 신청 접수	채무 조정 확약 내용 확인
저축은행 외 11건 약 4,500만 원 정도	소액채무재기 지원신청 대상 여부 확인	구비서류 준비 지원	채무 조정 결과 4,500만 원→1,200만 원 70% 채무 조정 채무상환 계획 점검 후 상환 확정

상담결과 및 사후관리

"이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씨는 상담 후 부채상환을 시작하였다. 확인된 부채 중 우선 정리할 수 있는 부채는 정리하여 부채 가짓수를 줄이고, 부채 관리가 쉬운 재무환경을 만들었다. 부채상환과 주거보증금 마련을 위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A씨에게 부채를 갚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청해 들었다.

"다 갚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은 거 같아요. 내가 스스로 번 돈으로 빚을 조금씩이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 마음이 더 밝아졌어요. 이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위 상담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받은 재무상담 사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올해 7월 출범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무상담 및 설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민상담소 Q&A

Q 자활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활사업이 본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단, 조건부 수급자 제외).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 문의주세요.

Q 희망키움통장1을 만기지급 해지했는데, 다른 통장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통장별로 1회 만기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속닥속닥 고민상담소 이용방법

익명보장

이메일 master@soyapr.com
문자 010-8996-0161
고민을 보내주세요!

속닥속닥 고민상담소

자활고사를 잘 보려면? 자활읽기 다시 보기!

자활고사 정답은 자활읽기 기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활읽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제를 풀고, 정답이 적힌 문제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 다섯 분께,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 딜라잇가든의 '수제 누룽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제 1교시

2019년도 상반기 자활고사 문제지

자활읽기 영역

2019.06 성명 |

01 김해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꿀벌여행 카페의 테마를 고르시오. HINT 12-15p

① 유람선 ② 비행기
③ 버스 ④ 기차

02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자활상품을 고르시오. HINT 2-5p

① 오징어 ② 우리 쌀
③ 누룽지 ④ 비누

0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몇 월 설립 예정인지 고르시오. HINT 16-23p

① 6월 ② 7월
③ 8월 ④ 9월

04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 이름을 적으시오. HINT 6-9p

( )

05 대전전동휠체어사업의 정식 명칭을 적으시오. HINT 10-11p

( )

06 자활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HINT 30p

응모방법

Step 1 자활고사 자활읽기 영역 문제지를 풀고 **정답**을 문제지에 표기한다.
Step 2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Step 3 사진을 **이메일**(master@soyapr.com) 혹은 **문자**(010.8996.0161)로 전송한다.

자활읽기

응모마감 2019년 7월 26일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dissw.or.kr)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 2019년 7월 31일

중앙자활센터 뉴스

중앙자활센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 위해 수요자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중앙자활센터(원장 이병학)·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신복위')는 지난 4월 17일, 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요구에 맞춰 종합상담·신용상담·자활사업 등 각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지역 서민금융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연계하고 업무협력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협약기관 종사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교육지원 ▲자활사업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공동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은 "협약을 통해 세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재무·신용상담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쉽게 정보를 취득 및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관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역 서민금융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자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세부적 협력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활사업 확대를 위한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지원 설명회 개최

중앙자활센터는 5월 17일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및 2019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설명(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전후 기관운영 변화 설명(시범사업 참여기관), 사례발표(시범사업 참여기관), 협동조합 조직 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설명(협동조합 전문가)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등장하여 더욱 확대된 자활사업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툼한 누룽지는 이제 그만!
세상에 없던 얇Thin한 누룽지의 등장,

딜라잇가든 수제 누룽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우리 쌀 누룽지
이에 끼지 않는 바삭함, 자꾸만 손이 가는 고소함에 푹~ 빠져보세요.

누룽지 5봉지
(1봉지 당 누룽지 5개) **6,000**원

구매방법 062-941-5051
패키지 외에 낱개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네이버 검색창에
"딜라잇가든 수제 누룽지" 검색!

상호 딜라잇가든 주소 광주 광산구 우산로 85번길 25

지금까지 이런 쿠키는 없었다.

순 우리 밀 100% 쿠키, 당신이 찾는 밀을 품다.

뷰밀(VOUMIL)

#우리밀 #광주 #특산품 #영양간식 #건강간식 #수제쿠키
#영양만점 #고소함 #적당한 #달달함

호두쿠키 3묶음
초코쿠키 2묶음
(1묶음 당 쿠키 5개)

10,000원

구매방법 062-941-5051
패키지 외에 낱개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 "뷰밀"

상호 뷰밀 주소 광주 광산구 목련로 65

뷰밀과 달라잇가든은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와 함께합니다.